



으나 어떤 학자는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심박수가 증가되어 운동을 하면 그것이 더욱 증가되기 때문에 적은 운동후에도 갑자기 피로가 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이도 있다.

만성피로증후군환자에서 보는 또다른 특징적인 증상은 설사, 복부팽만감(헛배부름), 위통 등과 같은 소화기계의 증상이다.

그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위산의 분비와 관계가 있는 히스타민이 과잉하게 분비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이 많다. 즉 다량으로 분비되는 히스타민에 의해 위산의 과잉분비가 촉진되어 위장관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를 뒷바침하는 사실로서 만성피로증후군환자는 병이 진행되면서 각종 알레르기성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15종류의 물질에 대하여 그 감수성을 조사하였던 바 그 모두에 감수성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어떤 환자의 경우는 발병초에 심한 설사가 야기되 내과 의사의 진찰을 받은 바 '경련성 대장'이라는 진단하에 정신과의 치료를 받도록 권했으며 정신과의 치료를 받았으나 설사는 잡히지 않아 1년간에 체중이 무려 25kg나 줄었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이 된 환자들이 나타낸 증상을 돌이켜 추궁해 볼 때 대부분의 환자는 독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경우는 운동을 하면 그 증상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어떤 환자의 경우는 사소한 운동 후에도 약 1주일이나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한다.**

감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소화기증상이 먼저 나타나 는 것이다.

따라서 소화기증상, 특히 심한 설사를 만성피로증후군 전구증상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만성피로증후군환자에게 나타나는 또하나의 특징적인 증상은 눈과 관계되는 증상이라 눈은 뇌와 직결되는 중추신경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중추신경계의 많은 질환이 눈에 영향을 미쳐 눈에 각종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만성피로증후군환자에게 나타나는 눈의 증상으로는 일시적인 시력상실(영구적인 실명이 아닌), 광과민증(光過敏症), 복시(複視), 비문증(飛蚊症), 염증, 안통, 눈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연게 보이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왜 이러한 눈의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기전은 아직 구명되지지는 않았으나 많은 안과의사들이 치료한 경험을 종합한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비문증, 즉 눈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증상은 눈을 움직이면 시야 가운데 '코라겐'으로 된 적은 덩어리가 뜨기 때문이며 이 증상은 치료하지 않아도 일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의 또 하나는 사고장애이다.**

정한 시간후에는 소실된다는 것이다.

복시, 즉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은 눈을 조절하는 에너지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증상임으로 치료는 안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며 광과민증의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태양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색안경을 착용하면 증상은 많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안통과 염증은 안구가 건조해 생기는 소위 건조 눈(dry eye)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안구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눈물의 생산을 억제하는 증상으로 안약으로 보충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망막(網膜)이 박리되거나 염증이 심해 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서는 심장기능에 이상을 보이는 것도 특징적인 증상의 하나이다. 한때는(1991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심장기능의 이상 증상이 마치 만성피로증후군과 같다해서 주치의들 위시한 많은 치료진이 신경을 곤두세운 적이 있었다고 한다. 만성피로증후군환자는 흔히 흉통(胸痛)을 호소하며 심장박동의 이상을 초래하고 심장을 청진할때 잡음이 들리며 빈맥(頻脈)등을 보인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보고에 의하면 1,300명의 만성피로증후군환자중 86%가 저혈압 증상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 매

우 주목할 만성피로증후군의 증례보고에 의하면 수잔이라는 미국의 부인환자는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려 증상이 나타날 무렵 자기집에 사육하던 개도 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동물병원에 보내 치료하였으나 그 개는 심실세동(心室細動)으로 사람으로서도 치명적인 부정맥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사망한 개를 부검한 의사에 의하면 그 개의 심장에서는 심근염(心筋炎)의 소견을 보았다고 한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서 특징적인 증상의 또하나의 사고장애(思考障礙)이다. 즉 집중력이 소실되고 계산은 전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물건을 사고도 돈계산을 못해 단지 요구하는대로 돈을 지불하게 되며 일기를 쓰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사용하기가 일쑤이고, 용어의 뜻이 생각나지않아 사전을 자주 펴게 되는데 어떤 환자는 of의 뜻이 생각나지않아 사전을 찾아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머리속에는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이 무엇으로 꽂 차있기 때문에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하나의 증상은 자기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전혀 생각나지않아 자주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요?”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卄